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혁과 고령화사회

이상훈 (새세대 아카데미 선임연구원)

I. 서론

II. 교회개혁과 교회됨

III. 종교개혁 신학과 공공신학

1. 종교개혁 신학
2. 공공신학

IV. 공공신학적 이슈로서의 고령화사회

V. 결론: 대안 제시와 희망 말하기의 책임자로서 교회와 신학

• ABSTRACT •

A Public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Church Reform and Aging Society

Lee, Sang-Hoon

From a public theological perspective, the rallying cry of the ecumenical church leaders the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means the church should pursue social reality and praxis corresponding to all sorts of metaphysical compliments and the stirring motto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 "The church reformed, always in need of being reformed" — refers to church called to serve the world for realizing the abundant life God provides for all creatures. A public theological perspective that encourages to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 in society tries to come up with alternatives embodying public good in the hope of the Reign of God. Churches can promote social reforms and changes by presenting alternatives and being an alternative community and this is the most persuasive way that they can serve the world. Importantly church and theology are not only responsible for serving the world, but also given theoretical and practical grounds and capacities to present alternatives. Christianity and church have sufficient doctrines and theoretical and practical resources which have been serving as a catalyst for cultural, systematic and institutional changes and development.

This paper examines the understanding of church from a public theological perspective in connection with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 "The church reformed, always in need of being reformed" — the 16th-century Latin motto that captures the spirit and purpose of the Reformation, and a favorite motto of the ecumenical church leaders the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The public nature and character of church and Christianity are properly dealt with and discussed in a public theological term. And a public theological perspective has a methodological relevance to discussion about letting the church be the church and church reform. The discussion made in such a way indicates churches need to go public in nature and character and christian communities should pursue public faith in common life. A public theological perspective that focuses on public faith and public church understands the church appears socially and/or publicly more persuasive when it tries to come up with alternatives and to become alternative communities. Further this paper argues that population aging and Homo hundred facing contemporary society is a public theological issue deserved to get attention in a common life. In this sense, this paper is an attempt to contribute to expanding the scope of public theological discussion and increasing its applicability in the social context.

Key words: Public Theology, aging society, Homo hundred, ecclesia (church), privatization

I. 서론

언젠가 카카오톡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중산층 별곡(別曲)’이라는 글이 널리 읽혀진 적이 있다.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중산층의 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양자 간에 발견되는 대조가 주목을 끈다. 한국의 중산층 기준은 갖고 있는 자산과 소득이 얼마나에 따라 여부가 갈리어 물질적·경제적인 면에 치우쳐 있는데 반해 선진국의 경우는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맞설 줄 알아야 중산층이라는 정신적·사회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¹⁾ 내용의 객관성은 차치하고 이 글에 대한 많은 네티즌들이 보인 대체적인 공감과 유사한 시각이 우리 국민의 행복에 대한 이해에서도 발견된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민 행복’ 여론조사에서 경제성장과 국민 행복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점과 행복도가 객관적인 소득수준보다 주관적인 생활형편 인식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귀하의 생활형편이 우리 사회의 상·중·하 계층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란 질문에 ‘상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행복하다’는 비율은 71%였고, ‘중층’은 55%, ‘하층’은 35%로 차이가 컸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에는 가진 돈의 절대 액수보다 그 사람의 생활이 돈에 얼마나 좌우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²⁾ 더욱이 물질적, 경제적인 부분에 치우친 가치관과 문화는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급속한 고령화와 관련하여서도 재현되는 것 같다.

2009년 UN 세계인구고령화 보고서는 미증유의 인구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밀어 닥치며 정치, 경제, 가족 등 인간 삶의 전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 우리나라는

1) 정재석, ‘중산층 별곡과 새해덕담’, 중앙일보, 2012년 12월 21일자.

2) 황영립, ‘행복한 국민’ 과연 늘어날까, 조선일보, 2012년 1월 30일자.

1990년도 초반 이후 최빈사망연령(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이 해마다 1년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고려하면 2020~2025년에는 100세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된다.⁴⁾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100세 시대는 개인은 물론, 사회·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러한 우려는 우리 국민의 43%가 다가올 100세 시대를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어느 정도 비쳐진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100세 시대 국민의식 조사’ 결과는 그 이유에 대해 너무 긴 노년기와 빈곤, 질병, 소외, 고독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준비되지 않은 100세 장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며 그 이면에는 불충분한 경제력과 역할은 없이 늘어난 여생 등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은퇴준비 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하여 사회문제가 될 위험이 커 ‘장수 리스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우리 사회의 제도나 시스템 및 의식은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지 못한 이전의 표준에 맞춰져 있어 대다수 국민들의 인생 계획 및 정책들이 과거 패러다임과 생애주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사실상 100세 시대는 단순히 수명이 연장된 것이 아닌 삶의 방식과 유형의 질적인 변화 및 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령화사회와 이에 따른 100세 시대는 이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뉴 노멀’ (New Normal) 즉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령화사회와 100세 시대는 공동의 삶의 문제이며 공적인 이슈이기에 우리 모두의 책임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여기에는 교회와 신학도 예외가 아니다.

3)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Ageing 2009*, 2010.

4) 이수영,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주최,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2011. 12. 8; 전홍택 외, 「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기독교 신학은 교회에 대한 신학이고 증인된 교회의 목회나 사역에 복무해야 한다. 위르겐 몰트만에 따르면 교회와 신학에게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구현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중요시된다. 여기서 신학은 “하나님-나라의-신학”이며 하나님 나라의 지평 속에서 “공적인(öffentliche) 신학”이다. 이 말은 신학이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내용이 개인의 영혼구원만이 아니며 이것에만 집중하려는 유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기독교 신학은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사회의 안녕(安寧)과 공공복리(公共福利)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⁵⁾ 기독교는 보편성을 추구하고 교회는 공적이며 사회적인 측면을 지니므로 사회적이고 공적인 책임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를 위한 신학은 이를 도와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가 사회와 세상의 대안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세워가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교회와 신학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이며 교회는 공적 공동체이고 신학은 공적 책임을 감당하는 공적신앙을 양육하며 공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돕는 공적 혹은 공공신학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적 존재로서의 교회는 신학과 더불어 공동의 삶의 이슈에 대한 책임적인 응답으로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 논문은 우선 언제나 개혁의 필요성 속에 있는 교회를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공공신학은 교회와 신학이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의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공공신학적인 관점에서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사회의 공익을 반영하고 포함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적 신앙과 공적 교회에 초점을 둔 공공신학적 논의는 교회가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할 때 사회적으로 특히 공적

5) 위르겐 몰트만, 광미숙 역, 『세계속에 있는 하나님』(서울: 동연, 2009), 7.

인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나아가서 필자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이슈인 고령화가 공적이고 공동의 삶의 문제이며 따라서 공공신학적인 이슈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공공신학적 논의의 범위를 넓히고 적용가능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신학은 시대를 해석하고 사회가 겪는 문제에 대한 답과 대안을 제시하여 왔으며 또한 필요시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개선을 위한 촉매역할을 하였다. 기독교의 전통과 교리는 그러한 촉매역할에 대한 많은 역사적 증거와 언제나 내재하는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II. 교회개혁과 교회됨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종교개혁의 정신과 목적을 담고 있는 이 모토는 교회 개혁의 당위성과 지속성뿐만 아니라 오늘의 한국 교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 방법론(기준과 근거)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이 모토는 대내·외로부터의 교회개혁이 요구되기 전에 이미 교회는 개혁되어야 함을 내포한다. 마치 개혁은 교회의 DNA 속에 코드화되어 있는 것같이 본질상 교회는 언제나 개혁을 추구하고 끊임없는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다. 교회가 대내·외로부터의 개혁에 대한 요구를 의식하고 존중함에도 이에 앞서 혹은 무관하게 이미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 속에 있고 끊임없이 개혁을 추구하듯이, 교회개혁의 준거는 그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교회의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함은 교회가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제도와 프로그램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구원의 선물인 하나님나라의 거울이고 여명이며 전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 개혁이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교회는 유효 적절히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

고 사회의 대안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는 교회가 보다 경주(傾注)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개혁요구나 비판을 의식하고 존중하면서 동시에 더욱 더 말씀에 기초해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공동체가 되는 것이다.⁶⁾ 여기에 세상과 사회가 추구하는 변화와 개선을 위한 진정된 희망의 근거가 있다.

이처럼 세상과 사회의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교회개혁이란 21세기의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대로 변화와 혁신에 의한 교회의 변신을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오늘날 교회의 개혁과 갱신이 요청되는 것은 교회가 현대적이어야 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게 만든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부터 비롯된다.⁷⁾ 교회개혁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 함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즉 교회는 변치 않는 성경의 진리에 따라 개혁되기에 지속적으로 그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야 하고 또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항상 변화되어야 한다.

위의 종교개혁의 모토는 4세기가 지난 20세기에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John Mackay)는 에큐메니칼 교회의 표어로 달리 피력되었다.⁸⁾ 이것은 교회가 내세우는 신앙과 그 실제적 실천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는 것에 불편해 했던 20세기 교회지도자들의 외침이자 요청이었다. 20세기의 에큐메니칼 교회의 이 구호는 21세기 오늘의 한국교회에도 여전히 정당한 요청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회는 시대의 변화와 유혹 그리고 도전과 위협에 맞서 항상 새로워지고 언제나 성경에 근거해 그 본래의 모습을

6) 세상과 사회로부터의 개혁요구나 비판의 내용은 시대정신이나 이데올로기에 편향될 수 있고 충분히 “복음적”이고 “신학적”이며 “개혁적”이지 않을 수 있다.

7)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Grand Rapids: Eerdmans, 1998), 188.

8) 존 맥케이(John A. Mackay, May 17, 1889 - June 9, 1983)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신학자이자 남미 선교사였으며 24년간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3대 총장과 에큐메닉스 교수로 봉직하였다.

회복해 나가야 한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는 구호는 그래서 교회가 말씀에 근거해 어떠한 책임을 늘 자성하는 노력을 쉬지 않아야 함을 뜻한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온갖 형이상학적 찬사에 일치하여 교회가 언제나 “사회적 실재와 실천”(social reality and praxis)을 수반하고 이점이 교회됨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바탕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함을 뜻한다.⁹⁾

프린스턴 신학자 다니엘 L. 밀리오리(Daniel L. Migliore)는 그의 조직신학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에서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 중의 하나로 신앙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를 말한다. 현대 문화에서 종교적 신앙과 실천은 개인주의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사화된 형태로 나타나며 종교의 문제는 공적인 영역과 분리되어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되므로 공동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의 문제와 신앙의 사사화는 교회의 선포와 사명을 삶의 보다 중요한 이슈들과 어려운 문제로부터 유리시키는 결과를 낳는다.¹⁰⁾ 교회와 신학은 개인주의화되고 사사화되는 것을 피하고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상징들에 표현되어 있는 삶의 ‘상호연관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현해야 한다.¹¹⁾

위의 관점은 교회개혁 혹은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시도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상기 내용에 기초하여 볼 때, 신앙의 사사화를 피하고 신앙과 실천의 일치에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들로서 삶을 살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을 위한 교회의 모델을 우리는 ‘섬김의’ 모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섬기신 주님의 증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섬김의 모델에 따르면, 교회는 양적 증가(부흥이 아닌 성장)를 주요 목적으로 하거나 비인간화된 현대인들의 개인적인 치유나 성숙을 위주로 하지 않으며 단지 메시지만을 선포

9) Migliore, 188.

10) Migliore, 186-187.

11) Migliore, 188.

하지도 않는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임무를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 모델에 따르면 교회는 비인간화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세계를 돕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디트리히 본회퍼는 타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이며 교회는 타자를 돕고 섬기는 가운데 세속적인 공동의 삶의 문제들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¹²⁾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늘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고 고립된 곳으로 도피하고픈 욕망”의 유혹에 맞닥뜨려 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종교적 영역”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세상 안에 계신 것과 대비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서 벗어나 “고립된 경건”을 추구하거나 “종교적 성역”이나 “기독교적 보호막” 안으로 퇴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 “마음의 중심에 서 있어야”하며 “지상의 잔을 남김없이 비워 마셔야 한다.”¹³⁾

비슷한 맥락에서 칼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고 지극히 세계를 위하여 존재하셨기에 교회 공동체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타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그를 순종하는 백성인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림으로써 세계와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부름 받는다. 그런데 세계와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부름 받는 것은 “부차적이거나 우연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본질적으로 교회의 개념 규정 그 자체에 있어서부터 그러한 것이다.”¹⁴⁾ 따라서 섬김의 모델로서의 교회는 영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 간의 이원화와 복음전파를 향한 관심과 비인간화의 극복노력 사이의

12) Migliore, 196; Bonhoeffer,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 (New York: Macmillian, 1967). 204; Cf. Avery Dulles, *Models of the Churches* (New York: Image, 2002).

13) 스탠리 그렌츠, 신원하 역,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서울: IVP, 2001), 213-4; Bonhoeffer,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 (New York: Macmillian, 1967), 93,112.

14)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V/3.2. trans. G. W. Bromiley (Edinburgh: T. & T. Clark, 1962), 762.

갈등을 해소시켜준다.

그러나 섬김의 모형에는 유의할 사항이 있다. 섬김을 강조하는 가운데 교회는 과도한 활동과 끊임없는 분주함을 섬김으로 생각하거나 섬김의 근거와 목표를 망각하고 사회적 기능을 위한 조직이나 사회 개선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더구나 교회가 지나치게 자신을 세상을 위한 섬김이로 이해함에 따라 복음전파와 영적인 삶이 사회봉사나 정치적 행동에 부차적이 될 위험도 있다.¹⁵⁾ 이와 연관되어, 교회가 특정한 사회 혹은 어떤 공동체나 제도나 문화 등 공동의 삶의 특정 프로그램을 향한 노력에 대해 쉽게 영적인 의미와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교회는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하며 기독교신앙을 대체하는 유사 영성을 채택, 실천하거나 대체신앙공동체가 되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사회와 현실에 과도하게 귀를 기울인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현 상황을 무비판적으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비판적 평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고 세계 속에 세계의 한 부분으로 내재(內在)한다. 동시에 교회는 세계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실존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내재를 체화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계 내재가 현실에 안주하는 흡수가 아니라 세계 변화를 일으키는 개혁적 참여이듯이, 교회의 세계 참여 역시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혁적 참여는 현실 세계를 비판적으로 고려하고 뛰어넘는 초월성의 성격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체화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not yet) 것과 마찬가지로이다.¹⁶⁾

15) Migliore, 198.

그러므로 이러한 섬김의 모형에 한층 더 나아가서 교회의 모습은 ‘공동체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활동’이 조명되는 ‘성령의 공동체’로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되며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인간성의 처음이자 영광스러운 새 시대의 ‘첫 열매’이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종말론적 상징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오심 안에서 실현되는 철저히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키며 다가올 훨씬 더 포괄적인 ‘새롭게 함’과 변화를 약속해 준다. 이때 교회는 세상 속의 비인간화 현실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것의 극복 시도를 통해, 기뻐하며 희망을 담지 하는데 이는 대안적인 코이노니아 속에서 새로운 삶과 기쁨을 미리 맛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는 표시이다. 자유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성령이 다스리고 그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환영받는 ‘대안적 공동체’로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계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¹⁷⁾ 교회는 부름 받은 대로 세상 속에서 섬김을 실천하고 비인간화의 현실 속에서 희망을 말하고 구체화하는 대안 공동체로 나타나야 하며 이것이 말씀에 근거하여 개인과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가장 잘 성취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여 간단없이 갱신과 개혁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필요가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 공동체의 한 모델로 나타남으로 그 본질적인 모습이자 정체성이 유지된다. 그리고 교회는 공동의 삶의 문제를 품고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통해 ‘개혁’의 교회가 되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개혁의 요구나 과제가 설득력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적 대안으로서의 교회의 개혁은 그래서 본질상 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그 방향을 지시한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언제나

16) 박종화, 「종교권력과 사회개혁: 기독교의 입장에서」, 『새길이야기』, 8호(2003년 봄).

17) Migliore, 192. Cf. David J. Bosch, *The Church as Alternative Community* (Potschefstroom: Institute vir Reformatoriese Studie, 1982).

사회의 개혁을 추진해왔고 사회의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 내었다. 이것은 가장 설득력 있게 사회를 섬기는 방식이다. 공동의 삶의 문제를 대처함에 적극 참여하고 해결책 고안에 기여하므로 공동선의 제고에 복무하는 면에서 교회는 공적으로 설득력 있게 사회에 봉사하고 섬긴다. 물론 다른 유형의 섬김을 존중하고 또한 협력하지만 대안제시와 대안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섬김의 모습이란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대내·외적인 교회 개혁에 대한 요구는 어쩌면 신학에게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교회가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바라는 다른 목소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 제시와 대안 공동체가 되는 일에 교회와 신학 그리고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초청되어졌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교회로 교회 되게 하라’는 20세기 교회 지도자들의 외침은 교회에 대한 형이상학적 서술에 마땅한 ‘사회적 실재와 실천’을 강조하며 신앙과 실천의 일치를 추구함으로써 신앙의 사사회를 극복하려는 바람이었다. 오늘날 교회개혁 요구의 뿌리는 신앙과 실천을 일치시키지 못한 것에서 뿐만 아니라 신조들이 지니고 있는 깊은 ‘사회적 의미’를 망각한데서 찾을 수 있다.¹⁸⁾ 기독교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고 모든 신조의 사회적 의미를 회복하는 것은 지상에서 교회(그리고 교회적 삶의 형태)가 그 징표이며 그 잠정적 표현인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기획이다. 교회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공동체이다. 동시에 교회는 인간과 세계를 모두 변혁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개혁의 실현이야 말로 성숙한 비판이 되고 개혁의 꽃은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혹은 대안 공동체가 되는 것)이며 대안 제시만큼 강력한 비판(교회의 사회에 대한 혹은 교회 내외에서의 교회에

18) Migliore, 188.

대한)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나아오기도 하지만 보다 더 전체 인간의 구원을 바라며 모두에게 열린 대안체제로 우리에게, 세상에, 인간 사회에 나아온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교회가 공적임을 말하고 교회 공동체가 공적 신앙을 추구해야함을 가리킨다.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공적 성격은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공공신학의 관점은 위에서 우리가 다룬 교회의 교회됨과 교회의 개혁에 대한 논의와 신학 방법론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교회의 교회됨’과 ‘교회의 개혁’은 종교개혁자들의 사상 속에서 그 본질과 특성이 형성되고 표현되며 이러한 교리적 내용을 주된 요소로 담고 있는 종교개혁 신학은 오늘날 공공신학적 주장에 방향과 통찰을 제공하고 양자 사이에는 내용과 실천에 있어 근본적인 연속성이 존재한다.

III. 종교개혁 신학과 공공신학

1. 종교개혁 신학

우리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 그리고 깊은 사회적 의미에 대한 모든 신자들의 소홀은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는 자성을 불러일으켰다. 교회를 묘사하는 온갖 형이상학적 찬사에 상응하는 “사회적 실재와 실천”을 강조하며 신앙과 실천의 일치를 추구함으로써 신앙의 사사회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강조되어야 한다. 이점은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개혁된 교회(ecclesia reformata)의 모습과도 일치한다. 개혁교회는 칼뱅주의를 기초로 하고 칼뱅주의는 핵심적인 종교개혁 신학적 특징이며 개혁자들은 중세 가톨릭교회가 약화시킨 ‘현세적’ 기독교인을 회복시켰다.

칼뱅주의의 하나님 절대주권사상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 즉 국가, 교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학문 등에 미침을 주장한다. 칼뱅주의에 따르면 하나님은 타락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류와의 직접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오셨다. 정죄된 것은 세계 자체라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죄악이다. 이는 세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가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죄악 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의 삶의 모든 영역과 현실문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타락한 창조세계에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기에 은둔적인 종교 생활로 퇴거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 세상의 어느 부분은 종교적이고 또 어느 부분은 세속적인 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는 삶의 어느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대 주권사상 아래서 신앙은 사(私)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과 관련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하나의 원리로서 문화변혁의 신학적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주권은 H.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의 분류법에 따르면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 유형과 관련된다.¹⁹⁾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역사의 배후에 친히 섭리하시며 세상 역사에 주권적으로 간섭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의 뜻에 맞게 바꾸어가고 변혁시키신다. 변혁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실에 일치하여 현세적인 기존 체계와 문화를 개선하려 한다. 또한 영혼을 돌보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세상과 공동의 삶 속에 있는 사람의 전 생애를 염두에 둔다.

루터역시 기독교 신앙이 교회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루터는

19)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Collins, 2001).

그 당시 교회가 구별하는 성(聖)과 속(俗)의 이층구조를 극복하려하였다. 이점에서 그는 중세교회 전체의 영성과 에토스를 형성시켰던 수도원적인 삶의 이상(가정공동체를 형성하여 자녀를 낳아 교육시키는 책임을 거부하는 금욕주의적 순결, 세상에서의 직업활동을 평가 절하하는 사도적 청빈,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대신 수도원 내에서의 순종 강조)이 특징인중세 기독교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세속화시켰다. 루터는 수도원과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내향(內向)하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삶을 거룩하게 살 것을 역설하였다. 그는 ‘만인제사장직’과 ‘성화’ 교리에 근거하여 모든 직업의 일과 온갖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각기 다 성별된 사제나 주교와 같다고 주장하였다.²⁰⁾ “그들은 각기 자기의 일이나 직무에 의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마치 몸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섬기는 것과 같으며, 이렇게 하는 것은 공동체의 육적인 또는 영적인 복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행하기 위해서다.”²¹⁾ 그의 주장에는 활동과 일을 통한 섬김의 사회 윤리적 실천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일반사회 공공복리에 대한 기여의 강조가 드러난다.

위의 시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공공신학적 이해에 기초하여 공적 교회에 소속되어서 공적 신앙을 소유하고 실천한다.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구속주이시며, 개인의 영혼만을 속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일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부르고 계신다. 기독교의 이 같은 개인적·사회적 정체성을 명확하고 타당하게 담아내는 신학적 접근 방식은 공공신학의 논의에서 발견된다.

20) 이형기, 「중세사회의 직업관과 루터신학에 있어서의 직업이해」, 오성춘 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21) 말틴 루터, 지원용 역,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 『종교개혁 3대 논문』, (서울: 컨콜디아사, 1993), 34.

2. 공공신학

앞에서 언급된 종교개혁 신학적 주제는 최근에 국내 학계에서 의미 있게 논의가 시작된 공공신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보인다. 종교개혁 신학은 공공신학이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신학적 본질과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학은 그것이 다루는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과 세계 때문에 공적인 신학 즉 공공신학이어야 한다. 공공신학은 기독교 신학 및 신앙의 성격과 기능을 개인적 혹은 사적(私的, private)인 영역이나 차원으로만 한정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사회일반과 관련하는 공적인 차원의 논의들이나 사회의 여러 영역들인, 문화, 예술, 가족, 과학기술, 경제, 정치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신학적 시도이다. 이를 위해 공공신학은 타 종교를 포함한 비기독교 전통들이나 자연과학, 사회과학, 역사과학 등 타 학문과 더불어 비판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신학 분야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신학자 맥스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는 자신의 관점이 공공신학으로 불리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한다. 우선, 기독교인들이 믿는 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제시하는 것은 비밀스럽고 선택된 소수만이 알 수 있거나, 이치에 어긋나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고 꼭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타 종교인들이나 다양한 이념을 따르는 비기독교인들과 더불어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시도는 ‘공적 삶의 체제와 정책에 대한 안내자’ 역할을 하고 방향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²²⁾ 더구나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유지하시는

22)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Lanham,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xi.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하라. Max L. Stackhouse, *Globalization and Grace* (New York: Continuum, 2007;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서울: 북코리아, 2007);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서울: 북코리아, 2008).

분 (Sustainer)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사를 수행하는지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갖고 계신다. 기독교의 창조 교리는 어떠한 것도 한분 하나님의 영역과 범위를 넘어서 존재하지 않는 점을 내포한다.

이러한 공공신학의 특징은 비기독교인들과 공동의 삶에 관련된 모든 공적인 이슈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방식뿐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며 공동의 삶이 개선되도록 돕는 데 있다. 따라서 ‘공적’(公的)이란 의미는 공적 삶을 위한 사회구조적 변형, 공공의 선을 위한 가치관 형성, 공적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신학과 타 학문 또는 전통 사이의 학제 간 혹은 전통간의 대화 등을 포함하기에 이론(신학)적 뿐만 아니라 사회 실천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럼에도 공공의 선을 추구함에 있어 요구되는 규범 또는 가치관을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신학적 전통에 입각하여 문화 간 및 종교 간 대화 가운데 제시함으로써 공적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공동의 삶의 변형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공적이라는 사실이 기억되어야 한다.²³⁾ 이와 같이 공공신학은 오늘날 점점 사사화되는 기독교 신앙의 경향성에 거슬러 공적 영역에 대한 신학의 적극적인 논의와 참여를 통하여 신앙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 교회 바깥 사회의 문화와 구조적 개선까지 추구하며 신앙에 일치하는 교회의 실천을 도우는 것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공공신학에 대한 논의는 목적상 공적 신앙(개인적 차원)과 공적 교회(공동체적 차원)를 요청하며 이 요청을 통한 상호연계는 공공신학의 논의가 인식론적이고 이론(신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회의 실천적이고 사회 참여적이며 현실기여적이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

23) 장신근, 『공적실천신학과 세계화시대의 기독교교육』(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07), 56-57.

다. 이 같은 전환과 발전은 앞에서 언급된 교회의 교회됨과 교회의 개혁이란 주제가 명시적으로 추구하는 신앙과 실천의 괴리 극복 및 사회의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 확립에도 잘 부합한다고 본다. 필자는 이러한 공적 신앙과 공적 교회에 초점을 둔 공공신학적 논의는 교회가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 공동체로서 나타날 때 특히 사회적으로 공적인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공신학은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적신앙을 양육하며 이를 통하여 공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²⁴⁾ 그리고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공적 교회를 형성·발전시키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살아가는 사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변혁을 도모하며 공적질서에 민감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를 말한다. 그러므로 공적 교회는 “자신을 넘어서 역사의 진행과정 속의 하나님의 프락시스를 지향할 것을 요구하는 성서적 근거에 충실하고자 노력”한다.²⁵⁾ 이와 같이 ‘공적 공동체’로 인식되는 공적 교회는 공적 신앙인들을 양성하고 훈육하는 ‘생태환경’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그들이 공적 신앙 안에서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하나님의 프락시스’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²⁶⁾

최근 공공신학에 관한 토론에서 공공신학은 사회의 변혁을 초래할 만큼 충분히 급진적이고 또한 실행 가능할 만큼 충분히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²⁷⁾ 문제와 이슈에 대한 공공신학의 접근방식이 상대적으로 ‘미시담론’이나 ‘개인윤리’적 차원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공공신학적 논의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적 보수성

24) 장신근, 55; James Fowler, *Faith Development and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22-25.

25) James Fowler, *Faith Development and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151.

26) 장신근, 55.

27) 채수일, <경제위기에 대한 교회의 대응>, 2009 총회 교회와 사회포럼, 2009. 2.

이나 낮은 현실적 실효성을 노정하는 대신, 사회의 공공의 과제에 그리스도인이 책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것은 공공신학의 논의에서 ‘공공성’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해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다.²⁸⁾ 교회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확립하는 신학적 기반이 제공됨으로써 공공복리를 신학적 성찰의 주제와 과제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공공성에 대한 인식은 몰트만의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서의 ‘공공 신학’에 대한 이해와 맥을 같이한다. 몰트만은 신학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서 공공 신학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세상과의 공적인 관계성 없이 기독교적인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학의 기독교적인 정체성 없이 세상과의 공적인 관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²⁹⁾ 그 이유를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나라의-신학’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소종파적으로 자신의 ‘신앙 공동체 속으로 퇴각’도 않고 현대성에 과민하여 사회의 흐름이나 트렌드에 편승도 않으며, 오히려 ‘저항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모든 피조물의 풍성한 삶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³⁰⁾ 이런 의미에서 신학은 사회의 공적인 일과 이슈에 주목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사회의 ‘공공복리’(공익)에 복무하기 위해 공동의 삶에 공적으로 참여해야 한다.³¹⁾

대안 공동체로서 교회는 사회의 모든 향상과 개혁의 이유이자 근거이며 또한 도전이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의 모든 시스템과 세상의 모든

28)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서울: 책세상, 2009), 34.

29) 위르겐 몰트만, 『세계속에 있는 하나님』, 9.

30) 위르겐 몰트만, 김균진 역, 『신학의 방법과 형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17; 채수일, <경제위기에 대한 교회의 대응>, 2009 총회 교회와 사회포럼, 2009. 2.

31) 위르겐 몰트만,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10.

개선 노력과 긴장관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며 증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제도와 법, 정치, 경제, 종교 및 문화 등 사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에 대한 교정(矯正)으로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도래 자체는 심판이며 분리이다. 그러나 심판적인 성격이 약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심판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개시된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심판은 구원을 위해 존재하고 작용한다. 교회가 그 표지이며 전위(前衛)인 하나님 나라는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전위로서의 교회는 ‘대안적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계에 희망을 가질 이유를 제공한다. 교회는 세상의 대안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함으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도전에 대응하는 가운데 공동의 삶의 모든 영역들과 제도들이 그것에 상응하게 변화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스스로 대안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세상 심판적인 하나님 나라의 징표인 교회를 통해 세상과 사회는 심판을 넘어 구원으로 인도되는 것이다. 교회가 그 징표인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두가 초청을 받았으며(마 22:1-14; 눅 14:15-2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딤후 2:4).

희망의 담지자로서 교회는 사회적 책임수행이 기대되고 책임수행의 시도로서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와 대안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대안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해 보일 것을 대·내외적으로 요청받고 있다. 따라서 모든 신학적 시도는 제안(proposal)이다. 신학은 전부 어떻게 삶의 자리나 현실을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고, 넓고, 깊고, 포괄적인 실재에 일치하여 무엇이 믿어져야 하고 어떤 삶이 살아져야 할 지에 관한 제안이다. 제안으로서의 모든 신학은 공중(公衆, public)의 도덕적, 영적, 물질적 생활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공적

인 수용성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신학은 실제적이고 실천적이다.³²⁾ 교회와 신학은 그래서 계속하여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자신의 존재 이유와 그것에 근거한 정체성 및 책임성을 실현하는데 힘써야 한다. 교회의 개혁은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사회 문제의 개선을 위해 복무하며 이를 위해 매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공공성은 공동의 삶의 문제에 대해 민감하며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서 나타난다. 그리고 사회가 맞닥뜨릴 문제의 극복을 위한 대안(이론적이고 실천적인)의 필요성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세상과 사회의 '가설적 요청'(hypothetical request)에 대한 책임적 응답을 통해 교회는 예수께서 개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며, 교회공동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변혁적 에너지는 사회 공동의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된다.

IV. 공공신학적 이슈로서의 고령화사회³³⁾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는 의미가 교회의 '사회적 실재와 실천'이 수반되어야 하고,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모토는 교회가 부름 받아 섬기는 공동체로서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 노력하도록 위임 받았음을 뜻한다.

32) Max L. Stackhouse, *Globalization and Grace* (New York: Continuum, 2007), 84.

33)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방향과 크기 때문에 고령화사회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지 않고 다만 이것이 공공신학적 이슈이며 교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만 부각시키고자 한다. 고령화사회란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전체의 7% 이상일 때를 말한다. 고령사회는 14%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일 때로 분류한다.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가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의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공공신학적인 관점에서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사회의 공익을 반영하고 포함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게 사회를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와 신학은 섬김과 대안 공동체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이론적, 실천적 근거와 자산 및 역량도 주어져 있다. 기독교와 교회는 신학적 전통이 제공하는 풍부한 교리와 이론적, 실천적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교회사 속에서 이들을 통한 많은 제도와 시스템의 발전들을 증거로 갖고 있다.³⁴⁾ 막스 베버(Max Weber)는 한 사회의 종교적 특성이 그 사회의 경제발전, 인권의 보호와 강조, 다원주의적 시민사회의 발달 등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문화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기독교적 신념과 삶의 습관 그리고 교리 및 신조가 과학기술, 정치, 경제(기업과 경영을 포함하여), 문화, 예술, 교육, 인권, 의료, 가정생활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바르게 이해되고 철저히 실천되었을 때 기독교 교리는 사회변화를 위한 촉매 역할을 했고 기독교적 실천 및 윤리는 공동의 삶과 사회의 개선을 위한 변화를 이끌었다.

우리는 지금 신인류의 출현에 견줄만한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

34) 예를 들어, 기독교적 신념과 삶의 습관, 교리 및 신조가 과학기술, 기업, 경영, 인권, 가정생활, 의료, 교육, 예술, 문학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다음을 보라. Max L. Stackhouse with Lawrence M. Stratton, *Capitalism, Civil Society, Religion, and the Poor: A Bibliographical Essay* (Wilmington, Delaware: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 2002); Nancy R. Pearcey and Charles B. Thaxton, *The Soul of Science: Christian Faith and Natural Philosophy* (Wheaton, Ill.: Crossway Books, 1994); John Hedley Brooke, *Science and Religion: Some Historical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D. James Kennedy and Jerry Newcombe, *What If Jesus Had Never Been Born?* (Nashville: Thomas Nelson, 1994); Charles E. Rosenberg, *The Care of Strangers: The Rise of America's Hospital System*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마이클 호튼, 윤석인 역, 『개혁주의 기독교세계관』(부흥과 개혁사, 2010).

다. 뇌 용량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수명에 의한 규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100세인을 의미하는 ‘호모 헉드레드’(Homo Hundred)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며 머지않아 100세 장수가 보편화될 것임을 관측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최빈사망연령이 90세가 되는 시점을 100세 시대라고 정의하면서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나라는 100세 시대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³⁵⁾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장수와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실 우리 국민의 43%가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니라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100세 시대 국민의식 조사’ 결과는 그 이유로 너무 긴 노년기와 함께 빈곤과 질병 등을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⁶⁾ 다시 말해 ‘준비되지 않은 100세 장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며 그 이면에는 불충분한 경제력과 역할이 없는 긴 노년기 등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장수 리스크’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장수리스크’란 사람들이 대체로 자신의 은퇴기간을 실제보다 상당히 짧게 예상하고 있어 노후자금 마련 등 은퇴준비 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하여 사회문제가 될 위험이 커다는 의미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 생명표, 장래인구추계 2010~2060’의 최신 통계치를 반영해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스페셜 보고서 ‘다양한 장수리스크의 산정과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의 장수리스크는 0.74로 추정되었다. 이 수치는 실제 은퇴기간이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평균 74%가량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미국의 장수리스크는 0.32, 일본은 0.29, 영국은 0.33으로 나타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장수리스크가 약 2.5배나 높다.³⁷⁾

35) 각주 3)을 보라.

3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결과』, 2011.

37)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다양한 장수리스크의 산정과 국제비교』, 2012. 12. 29.; 통

우리나라의 장수리스크가 위와 같이 높은 이유는 급속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은퇴기간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100세 시대 즉 고령화사회의 도전에 대해 공공신학적 시각은 교회와 신학이 사회 책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우선 고령화사회는 공동의 삶의 문제이며 공적인 이슈이기 때문이다. 흔히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압축적 고령화라 부르기도 한다. 압축적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일본과 이탈리아 등 대표적인 고령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최고령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더구나 출생율과 사망률이 동시에 감소함에 따라 인구전체의 상대적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된다. 또한 고령화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이자 동시에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면에서 공적인 이슈이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인구의 상대적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고령화 현상이 한국 사회의 고령화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실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의 저자 조지 매그너스는 인구 고령화를 포함해 인구 구조 변화의 중요성이 큰 이유 중의 하나를 종교적 신념이 강한 정도와 나이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³⁸⁾ 그가 인용한 런던 버크백 칼리지(Birkbeck College) 정치사회학 교수 에릭 카우프만(Eric Kaufman)의 연구에 따르면 194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종교적 성향이 낮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종교적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⁹⁾ 그의 관찰은 베이비붐 세대와 그 자녀들이 그 전 세대에 비해 종교적 성향은 낮지만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종교적 성향이

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2011. 12. 7.

38) 조지 매그너스, 홍지수 역, 『고령화시대의 경제학』(서울: 부키, 2010), 337-8.

39) 조지 매그너스, 345.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의 고령화를 앞지르는 교회의 고령화는 고령화사회가 교회와 무관하지 않으며 공적인 이슈인 고령화사회 문제에 교회와 신학이 관심을 가져야함을 잘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100세 시대는 단순히 생애가 연장된 것이 아닌 삶의 방식과 유형의 질적인 변화 및 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령화사회와 이에 따른 100세 시대는 ‘뉴노멀’(New Normal) 즉 새로운 기준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 100세 시대가 단순히 수명이 길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삶의 모든 면에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애주기를 100세에 맞추고, 개인과 사회의 전 분야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고령화사회와 100세 시대는 고령자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를 사는 인류 전체가 새로운 경제·사회·문화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므로 인류학적 패러다임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 및 인식은 이전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⁴⁰⁾

그런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고령화사회 및 은퇴에 대한 준비에서 비재무분야(일과 직업, 사회활동, 종교, 가치관과 문화, 평생학습, 가족관계 및 공동체 등)가 재무분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⁴¹⁾ 그리고 고령화사회 문제의 더 깊은 근원과 대처방안은 무엇보다도 인식과 태도 혹은 문화와 가치관에 직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고령화사회와 관련된 이슈는 ‘생애주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은퇴와 직업 이해’, ‘노화에 대한 인식과 편견’, ‘고령층의 인권문제와 생명에 대한 이해’,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 ‘고령화에 따른 가족과 인간

40)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주최,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2011. 12. 8.

41) 예를 들어 강창희 전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장과 우재룡 전 삼성생명은퇴연구소장 등이다.

관계의 변화' 등으로 귀착된다. 이러한 일련의 이슈들에서 시사되는 것은 고령화사회가 개인과 공동체 및 교회와 사회 전반에 관련되며 보다 더 심층적이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신학·윤리적인 이해와 가이드가 요구되기에 타당하게 공공신학적인 과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쉬는' 은퇴라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인생 2막' 혹은 '후반인생'을 적극적이며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은퇴에 대한 이해와 정년후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에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려면 은퇴와 일/직업에 대한 관점과 노화에 대한 편견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태초부터 인간은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적 다스림의 임무를 부름을 받았고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건설하며 인간 사회를 발전시켜가도록 소명을 받았다.⁴²⁾ 소명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이상적 존재 상태는 영구적인 여가나 끝없는 휴가(기도와 묵상을 위해 수도원으로 피정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창조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⁴³⁾ 소명으로서의 직업(그리고 다양한 사회참여)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분을 섬기며 이웃에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참여를 포함하여 일이나 직업은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본래 목적이자 숭고한 부르심이다. 인간이 직업이나 사회참여를 통해 창조적인 존재가 되고 문화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문화를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길이 된다.

그러므로 근대에 와서 세상과 사회가 필요에 의해 제도화시킨 은퇴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과 부름 받은 자로서 청지기 정신에 입각하여 의미와 보람 있는 정년 후 활동(일이나 봉사)을 지속해야 한다.

42)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 문화 전쟁 시대의 기독교 문화 전략』(IVP, 2002).

43) 낸시 피어시, 홍명룡 역, 『완전한 진리』(서울: 복있는 사람, 2006), 98.

직업이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듯이 경제적 여유가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서 ‘쉬는’ 은퇴 대신 생산적이고 기여하는 노년생활을 사회·문화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⁴⁴⁾ 사실 문화·정서적으로 우리 사회는 노동에 대한 의미 부여가 인색하였으며 특히 정년 후나 노년에 소득을 위해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⁴⁵⁾ 백세시대와 고령화사회라는 도전에 대해 ‘소명으로서의 직업’ 이해와 청지기적 삶의 방식은 그래서 ‘인식의 변화’와 은퇴 후 생산적이고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의미부여’를 통해 극복과 대안을 위한 통찰과 방향 제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등장한 고령화사회 문제에 기독교 신학과 교회는 성경과 교리에 기초한 대안 제시와 대안 공동체의 이론적·실천적 모델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책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⁴⁶⁾

44) 지난해 10월 23일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령자라는 명칭을 없애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장년)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 문서에서 ‘고령자란 말이 사라진다. 50세에서 64세까지의 연령대를 가리키는 용어는 ‘장년(長年)’으로 바뀐다. 경험을 쌓았고 생체적·정신적으로 노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30~40대를 일컫는 장년(壯年)과는 구별된다.

45) 사실 고령화사회의 도전에 맞서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중 하나는 노화와 관련하여 개인의 의식과 사회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편견이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 차별당하는 인간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변화시켰듯이 노화에 대한 그릇된 관념은 인간을 열등하게 만드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못지않게 비인간화의 동인(動因)이 된다. 프랭크 슈르마허는 자신의 저서 『고령 사회 2018: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에서 노화에 대한 편견은 치명적인 이데올로기이므로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해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저자는 인간의 노화를 가장 독자적인 문명의 사건들 중 하나로 새롭게 정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락사 등 생명경시 풍조의 문명, 대규모 세대 간 전쟁, 가장 심각한 (인적)자원의 낭용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 곧 모든 것이 달린 문제이기에 미래의 다수인 우리가 노화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면 노화를 대하는 모든 사회의 자세를 바꿀 수 있다고 역설한다. 프랭크 슈르마허, 장혜경 역, 『고령 사회 2018: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서울: 나무생각, 2011)을 보라.

46) 고령화사회의 대처를 위한 신학적 제안은 다양한 신학·윤리 사상적, 교리적 아이টে임을 통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언급된 ‘소명’과 ‘청지기사상’외에, ‘언약,

V. 결론: 대안 제시와 희망 말하기의 책임자로서 교회와 신학

언젠가부터 정치경제적 이슈와 논의에 가장 논란이 되며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에 복지와 일자리가 있다. 이 두 이슈와 관련된 사항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실현 가능성과 방법론은 차치하더라도 고령화사회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되는 요소 중에 들어간다. 고령화사회 문제는 그 어떤 이슈보다 공공성에 관련되고 따라서 공공신학적 관심을 일으키며 공공신학적 이슈로 인식되고 다루어져야 한다. 교회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취급해야 할 책임이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산과 역량도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과 교리가 그 근거가 된다는 사실과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이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물 속에 제시되어 있음을 본다.⁴⁷⁾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개혁을 시도할 때 그리고 교회가 교회 되어질 때 말씀과 교리에 충실하고 대안을 제시할 바탕을 마련하게 된다. 설득력 있고 실행 가능한 대안제시 없는 교회 내외에서의 교회 비판과 개혁요구는 미완의 기획이며 논의의 끝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지나칠 경우 의도하지 않게 종교적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도 있다. 교회와 신학은 세상과 사회를 위한 대안 제시를 목표로 방법론과 이행능력을 배양하고 실현해야 한다. 신학은 그래서 공공신학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사회적 실재와 실천”(social reality and praxis)에 소홀하고 자신의 신앙을 사사화하면 공적 사회로부터 사사화 당할 수 있다.

실제로 교회는 사사화의 길을 걸으면서 공적인 이슈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함으로써 대안을 고안하여 제시할 수 있는 영성적이고 신학적인 ‘자

‘안식’,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론’, ‘만인제사장직’, ‘성화’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대안 제시와 대안 공동체의 이론적·실천적 모델 개발을 위한 교회와 신학의 책임적인 참여를 지적하고 상기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들 각각에 관해서는 상세히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47) 각주 33) 참조.

기 자본'을 어느 정도 잠식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과 시민단체 및 대학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그 성과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목적일수도 이념적 이유일 수도 있으나 자신들의 방식으로 호응을 얻는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을 '소비'하는 소비층들을 교회 내·외로부터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다. 흥미롭게도 대안 제시를 위한 이들의 이론과 원칙은 교회가 표방하고 신학이 가르치는 내용과 거리가 멀지않다. 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한 '소비자들'은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교회와 신학의 존재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와 세상에 희망을 말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이고 희망은 교회와 신학이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전해야 하는 메시지이다. 교회와 신학이 공공성을 지향하여 희망을 찾고자하는 사람들과 희망이 필요한 문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신학을 제쳐두거나 교회가 참여하지 않는 사회에서의 '희망' 만들기는 교회와 신학에 존재감의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대안 제시에 왜곡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교회는 희망의 담지자이고 신학은 희망 만들기의 책임자이기에 교회와 신학은 희망 메신저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은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고령화사회와 백세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나 제도나 복지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교회와 신학이 중요하게 기여해야하는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며 이들이 우선적으로 초청받고 참여할 때 왜곡과 혼란을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는 설득력 있고 지속 가능한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

교회는 항상 개혁됨으로 교회되어 진다. 그 준거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체계화된 지식인 교리다. 말씀과 교리를 철저히 실천함으로 신앙의 사사회를 피하고 신앙과 삶의 일치와 교회 갱신이 일어나며 그

구체적인 표현은 세상과 사회를 위한 대안 제시와 대안 공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이다. 교회는 대안 제시를 통하여 공적으로 설득력 있게 사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다. 설득력 있고 실행 가능한 대안 제시가 교회 개혁 논의의 방향이요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서 공공신학이 세상과 사회의 모든 노력에 대하여 제시하는 심판이며 구원의 길이다. 그 길의 시작은 교회의 교회됨에 있고 이는 교회의 교리를 준수함에 따른 삶과 신앙의 일치에 있다. 이러한 이해는 신앙의 사사회를 지양(止揚)하는 공공신학적 관점에 터한다. 공공신학은 성경이 교리로서 현대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고 현대사회의 견인을 위해 필요한 통찰과 영성적 자산을 믿음의 공동체에게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 문화 전쟁 시대의 기독교 문화 전략』. IVP, 2002.
- 이수영.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주최.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2011. 12. 8.
- 이형기. 『중세사회의 직업관과 루터신학에 있어서의 직업이해』. 오성춘 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136-189.
- 장신근. 『공적실천신학과 세계화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7.
- 전홍택 외. 『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책세상, 2009.
- 채수일. “경제위기에 대한 교회의 대응”. 2009 총회 교회와 사회포럼, 2009. 2. 26.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2011. 12. 7.
- 말틴 루터, 지원용 역.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 『종교개혁 3대 논문』. 서울: 컨콜디아사, 1993.
- 몰트만, 위르겐, 김균진 역. 『신학의 방법과 형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다양한 장수리스크의 산정과 국제비교』. 2012. 12. 29.
- 프랭크 쉬르마허, 장혜경 역. 『고령 사회 2018: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 서울: 나무생각, 2011.
- Grenz, Stanley. *The Moral Quest: Foundations of Christian Ethics*, 신원하 역,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서울: IVP, 2001.
- Horton, Michael. *Where in the World is the Church?*, 윤석인 역. 『개혁주의 기독교세계관』. 부흥과 개혁사, 2010.
- Magnus, George. *The Age of Aging*, 홍지수 역, 『고령화시대의 경제학』. 서울: 부키, 2010.
- Pearcey, Nancy R. *Total Truth*, 홍병룡 역, 『완전한 진리』. 서울: 복있는 사람, 2006.
- Barth, Karl. *Church Dogmatics*. IV/3.2. trans. G. W. Bromiley, Edinburgh: T. & T. Clark, 1962.

- Brooke, John Hedley. *Science and Religion: Some Historical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Fowler, James. *Faith Development and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 Migliore, Daniel L. *Faith Seeking Understanding*. Grand Rapids: Eerdmans, 1998.
- Pearcey, Nancy R, and Charles B. Thaxton. *The Soul of Science: Christian Faith and Natural Philosophy*. Wheaton, Ill.: Crossway Books, 1994.
- Rosenberg, Charles E. *The Care of Strangers: The Rise of America's Hospital System*.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 Stackhouse, Max L. *Globalization and Grace*. New York: Continuum, 2007.
- Stackhouse, Max L.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Lanham,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 Stackhouse, Max L. with Lawrence M. Stratton, *Capitalism, Civil Society, Religion, and the Poor: A Bibliographical Essay* (Wilmington, Delaware: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 2002.
-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Ageing 2009*, 2010.

• 국 문 초 록 •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는 의미는 교회의 ‘사회적 실재와 실천’이 수반되어야 하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모토는 교회가 부름 받아 섬기는 공동체로서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섬기도록 위임받았음을 뜻한다. 사회의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공공신학적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사회의 공익을 반영하고 포함하는 대안을 제시하게 한다.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 공동체가 됨으로써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 교회가 가장 설득력 있게 사회를 섬기는 길이다. 그런데 교회와 신학은 섬김과 대안 공동체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이론적, 실천적 근거와 역량도 주어져 있다. 기독교와 교회는 신학적 전통이 제공하는 교리와 이론적, 실천적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 이들을 통한 제도와 문화 그리고 시스템의 변화와 발전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왔다.

본 논문은 먼저 종교개혁의 정신과 목적을 담고 있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모토와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는 20세기 교회지도자들의 외침과 관련하여 교회에 대한 이해를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공적 성격은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공공신학의 관점은 교회의 교회됨과 교회의 개혁에 대한 논의와 신학 방법론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이러한 논의는 교회가 공적임을 말하고 교회 공동체가 공적 신앙을 추구해야함을 의미한다. 공적 신앙과 공적 교회에 초점을 둔 공공신학적 논의는 교회와 신학이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할 때 사회적으로 특히 공적인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이슈인 고령화가 공적이고 공동의 삶의 문제이며 따라서 공공신학적인 이슈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공공신학적 논의의 범위를 넓히고 적용가능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교회의 신학은 시대를 해석하고 사회가 맞닥뜨린 문제에 대한 답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또한 필요시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개선을 위한 촉매역할을 주저하지 않았다.

주제어: 공공신학, 고령화 사회, 교회, 공적신앙, 사사회, 백세인
